

44과 자기 백성을 구한 애스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
삼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널리 전파되고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
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통해 저희에게 맡겨진 유치부, 초등부의 귀한 학생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조성
해주시고

공급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두달여 남짓 남은 2014년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유초등부 교사
들 함께 모여서

이제 시작될 수양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마땅한 마음을 넣어주시며

그 마음에 합당한 시간들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질 수 있도록 입술에 함께 해 주시

고

듣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주님 역사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우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성경 에스더 1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제 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11.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듯하더라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써의 마땅한 마음과 태도를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아하수에르 왕의 본 왕후였던 와스디를 잠깐

생각을 해보구요 그리고 에스더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써의 합당한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1장은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쫓아 나오지 않으므로 폐위 되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의 폐위가 결국 에스더의 즉위로 이어지는 내용이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에스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1장 와스디의 폐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스디는 왕의 왕후였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였는데

왕이 술자리에서 부르는 그 부름에 나아가지 않음을 인해서 폐위가 된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거 같아요

와스디는 왕이 부르는데 나아가지 않았습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왕이 술자리에서 자기를 초청한 것이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자기를 부른 이유가 왕의 앞에서 그 아리다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부른거죠타요?

내 아내 이쁘다. 하고 자랑하려고 아내를 불러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와스디가 나아가기를 거절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은 와스디가 잘 못한 일인가? 아니면 왕인 아하수에로가 잘못된 일인가?

와스디는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제님들에게 물어보면 와스디가 잘 못했다고 할 것 같고

자매님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와스디가 잘 못 한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잘 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 속으로는 그렇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잘 한것도 아니죠 그쵸?

어떤 분이 현실적인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잘 못한 것이라요

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초청한 목적이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아리다움을

보이게 할 목적이었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줘야될 것 아니냐? 미장원도 갔다오고 화장도 해야되고

기초 파운데이션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름다움을 뽐내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뒤에서 부녀들과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에서

아마 의관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미모를 과시하라고 하면 어떨하냐?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요

저희 집사람도 굳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과시 할 것도 없는데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와스디가 잘 못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잘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하수어로 왕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하수어로 왕이 잘 못한 부분이 있죠

아무리 왕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정말 급작스럽게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불러 내는 것 그것도 술자리에서

여흥이 돈아가지고 즉 술이 어느정도 취해서 불러낸 것은

분명 왕이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로써 왕비로써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술자리에서 기쁨조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미모를 과시하고 그것도 취객들 앞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후로써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래서 못간다고 말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왕후가 잘 못한 일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왕후가 생각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왕의 위치를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의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단이었다는거죠

지금 왕인 아하수어로 왕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 내용을 보면

왕이 된지 3년만에 모든 127도의 장수와 또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을 다 왕 앞에 모아서

180일 동안 한 잔치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아하수어로왕 3년이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고

예를 들면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집트의 잔존세력의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잔존세력의 반란 같은 것을 평정하고 난 다음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왕권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부귀와 권력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한 180일 간의 잔치라고 배경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더한가지 배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서 마음속에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반도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했죠 그 전쟁이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고 이
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의 유래가된 그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4년만에 다리오
왕은

여러 가지 화병이라든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게되죠

아하수어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로써 그 아버지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어로 왕은 다시 한번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그 전쟁을 배경을 만들어진 영화라고 들었습니
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사를 압두고 있는거예요

온 페르시아가 뚝뚝뚝쳐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런 상황인거예요

게다가 이미 한번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패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받게 없겠조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해야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만과 2만이 전쟁을 할 때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만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급히 화친을 청하는게

그게 합당한 태도죠 왜냐면 전쟁에서의 성패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니까요

이건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개인의 목숨을 넘어서서 왕의 목숨과 국가의 운명까지를

전부다 거는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차례 패한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있을 꺼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 전체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결집을 위해서 벌이는 잔치가 180일 동안 각도의 모든 장수와 방백과

모든 귀족들을 모아서 벌이는 이 잔치라는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저 아하수어로 왕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잔치라기 보다

국가의 마음을 한 데 모아서 곳 있을 그리스와의 결전을 독려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마음속의 전의를 북돋으면서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걸고 싸우게 하려는

중요한 목적가지고 하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은 국가 대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왕이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내로써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아마 이 아하수어로 왕은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되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는요 비교도 안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져도 비교도 안됩니다. 페르시아의 상징이 은이거든요

은은 돈을 상징하는데 페루시아의 부귀 영화라든지 군사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를 몇 번이고 집어삼키고 남을 정도예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가 많고 자원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군사력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크세로 크세스왕 아하수어로 왕은 180일 동안 자기 나라 127도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번갈아 가면서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 장수들을 격려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굉장한 애를 썼을 것이란 생각해요

잔치를 180일 한다고 생각해보십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회식을 180일 한다 정말 악몽이잖아요

왕도 이 것이 편한일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되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마음을 독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내가 분반아이들을 180일 동안 심방한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거의다 마치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왕궁 후원 뜰에서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80일 동안 수산성에서 잔치를 하느라고 수산성에 있는 인민들이 백성들이

굉장한 불편을 감수했어야 했을거예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행사를 치루게 되면 차량도 통제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지 일상들을 통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80일 동안 도성에 있는

인민들의 삶이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위한 잔치를 마치고

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인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고 있는겁니다.

고생했다고 7일 동안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7일간의 잔치를 다 마치고

마지막 7일째 저녁에 끝무렵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180일 잔치를 마치고 또 7일간의 잔치를 마치고 이제 이제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긴장이 풀어졌겠죠 모든일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었고

127도의 모든 장수와 방백과 귀족의 마음이 모여있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를 얻었고 자기와 자기밑에서 그 일을 함께 꾸렸던 귀족들이나 내시들도

이제 어느정도 일이 마무리 되어서 안도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지막 때에 이제 왕의 마음이 술로 인해서 긴장도 풀어지고

또 다소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서 공적인 자리이기 보다는 사적인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예뻐기 때문에 와스디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이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란 거죠

내가 왕후로써 그러한 술 주정뱅이들의 자리에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아름다움을 뽐내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는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왕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미 술이 상당히 취한 방백들도 있고 또 수산궁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고 또 나와 동급이 아니고 신하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굽혀야 하느냐?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 위치, 체면, 감정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냐?

그러기 싫다라는 거죠 감히 나를 누구로 알고 이런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만일 남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마땅히 왕후로써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게 그게 왕후를 떠나서

아내로써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중대한 일을 하는데 아내가 자기 자존심 좀

굽힐 수 있잖아요 아내가 해야될 일은 남편의 뜻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난처한 문제가 생겨버렸죠 지금까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7일동안

잔치를 벌인게 마음을 모으기 위함이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이 되었을 거예요 왕비가 안온데

왕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잠깐 얼굴 내비치라는 데 안 듣는데

우리가 왕의 말을 듣고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실제로 그 전쟁에서 패했죠 결국은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대양을 건너가지고 그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하나하나 싸워야 되느냐?

왕의 말을 왕비도 안듣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왕은 왕비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127도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자기 집안도 못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까지 점령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 어찌보면 우수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80일 동안 모아놓았던 마음이 한 순간에 와해되 버리는거예요

자기 집안이나 잘 다스리라고 전하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중심에 불붙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아내도 내 말을 안듣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집안이 왕의 집안이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 나라 전체의 왕과 왕비가 불화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은 못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 행위가 전파가 되게 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거예요 왕비가 왕의 말을 안들으면

평민의 아내도 남편말을 안들을 수 있겠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생각했지 남편의 위치나 자기의 위치 혹은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사명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하수에로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를 아무렇게나 벌이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

에스더 1장 7-8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안 읽으심)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7Y daban a beber en vasos de oro, y vasos diferentes unos de otros, y mucho vino real, de acuerdo con la generosidad del rey.

8 Y la bebida era según esta ley: Que nadie fuese obligado a beber; porque así lo había mandado el rey a todos los mayordomos de su casa, que se hiciese según la voluntad de cada uno.

왕이 왕이라고 해서 너 마셔 억지로 먹이고 폭탄주 메기고 벌주 먹이고

오늘 안취해서 돌아가는 사람은 억적이야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규모가 있고 사리분별이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또 마음에 중심이 불 있는 듯한 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먼저는 사리를 아는 자기 궁전의 박사들에게 또 방백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질문을 하고 모든 일을 결정을 했거든요

술자리에서 즉석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야 도장찍어 하고 찍어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술 깨고 다음 날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조언을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폐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왕으로써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에스더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인물 이거든요

그런면에서 본다면 이 와스디 왕후는 개인적인 자존심과 혹은 개인적인 감정

혹은 이기심 같은 것에 휩싸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르쳐 버리고 결국은 왕후의 위에서

쫓겨난 그런 어리석은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꺼예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 한 경우에도 순종함으로써 존귀를 얻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빼앗긴 것은 이해가 되요 팔아버린 것은 용납이 안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누
이동생인데요

그럼 데려가도 될까요? 예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럼 이거 예물로 하고 돈을 많이 주니까 또 받아먹었어요 그 돈을

뭐 그냥 빼앗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넘겨주고 자기는 재물을 받고 한번이 모자라서 두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
거든요

내가 볼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일을 하실까?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순종할 만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했죠

더한 상황에서도 자기자신을 낮추고 이기심 자존심을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부녀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와스디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와스디 같은 사람의 대표가 미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Volvió luego David para bendecir su casa; y saliendo Mical a recibir a David, dijo: !!Cuán honrado ha quedado hoy el rey de Israel, descubriéndose hoy delante de las criadas de sus siervos, como se descubre sin decoro un cualquiera!

다윗이 아마 춤을 추느라구요 옷이 벗겨진거 같아요 그 예복있죠? 왕이 입는 왕복은 벗어 놓구요

그리고 이제 아마 속옷은 입었을 텐데 속옷 입고 춤을 격력하게 추다보니까 살짝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갈의 눈에는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인거예요

왕이면 분명히 왕으로써의 체통을 지키고 권위를 세우고 그 위엄을, 격식을 갖춰야지

왕이 어떻게 아내 앞에서도 아니고 방탕한 사람처럼 시녀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왕이 천박한 사람처럼 춤을 추느냐?

그 배경은 전혀 관심이 없는거죠

지금 다윗이 무슨일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뺏고 그리고 거기에 궁전을 세우고

이제 언약궤를 들고 성전을 세우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데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그 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왕인데 그렇게 춤을 추면 되냐는 그런 판단 역시 없신 여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겁니다.

미갈의 그런 모습은 아버지 사울에게 배웠겠죠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였어요? 자기 이름 자기 위치 자기 영광이였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이 다윗보다 낮아진 것을

감당할 수 없는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는 관심이 없는거잖아요

미갈이 그런마음을 가졌었는데 와스디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모르드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죈

하만은 마귀의 모형이고 에스더는 성도 개인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은 교회의 모형이죈

이 상황에서 만일 그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의 모형 혹은 남편의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와스디는 우리 개개인이라고 말할 수 도 있을 꺼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드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합당치 못한 모습이죈 만일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기 감정에 맞지 않다고

혹은 자기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이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배척해 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폐워된 와스디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이

내 이기적인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배척해버린다면 폐위 되는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그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희생에 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마치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건데 희생없는 소금을 이야기 하는거 거든요

희생없는 소금은 쓸데가 한 군데 받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길거리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발피는 용도 미끄러지지 않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용도 받게는 쓰일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이 다시는 저희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거죠

내게 주인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종이고 좋은 자기가 없는거고

자기 생각이 없는거고 자기 소유가 없는거예요

주인이 시킨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게 그리스도인인데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상요할수 없는게 되는거죠 버리게 되는거고 폐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와스디는 이 조그만한 희생을 싫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위치를 뺏겨버렸습니다.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아내라는 그 엄청난 위치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희생을 하기 싫어서 결국은 폐위됐어요 쫓겨났고 그 이후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어인으로써 우리입에 오르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구속사

그 대역사를 위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

다.

그런데 그 희생이라는게 죽으라고 까지 요구 하실수 있지만

우리시대에 그렇게 까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그만한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신하들과 수다떨고 있고 싶은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잠깐 의관을 정제하고 나아가서 하기 싫지만 자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조그만한 수고를 요구하는거예요 그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절대 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와스디가 처음부터 왕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왕에 의해서 간택이 되어서 왕후가 된건데

자기를 왕후로 간택해준 왕의 은혜에 대해서 그 조그만한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수고를 하기 싫어서 폐위가 된다는 라는것 그것이 어리석은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아내 신부를 위해서 죽고 피흘려서 신부를 구속했는데

신부의 위치에 올려주었는데 그리고 신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싫어해서 만일 혹은 개개인의 성도가 그것을 싫어해서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잠깐의 귀찮음을 견디기 싫어서

혹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쑥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맞겨진 일을 거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될거예요

예전에 저도 처음 교회학교에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예쁜손 허리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한 예비역 3학년 이였거든요

그때 예비역 3학년이면 교회학교 내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때는 다들 젊었었거든요

예쁜손 허리? 육군 병장 제대한 나에게 예쁜손 허리? 이걸 하라고? 속으로 이러면서

내가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은 것들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보면 나이먹고 회사나가면 사장이고 부장이고 차장인데

집에가면 큰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인데 또 어머니인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되는가 그런 생각이 될수 있을 겁니다

먹고남은 잔밥그릇 설거지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것 해야하나 이런 생각 들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조그만한 자 존심 상하는 것

조그만한 수고하는 것 그게 무슨 대수가 될수는 없지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벌거벗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처형 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잠깐 자기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대사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할 이유가 어디있겠어요

와스디는 잠깐 자기모습 보이는 것 뿐이었습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구원하는 일은 자기일을 잠깐 보여서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과 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아내는 되지 말아야 겠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교회의 뜻에 무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지하고

그저 내 자신의 이기심에 가득차있고 내 자신의 안일과 현재 주어진 위치만
누리려는

그런 마음은 나에게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와스디를 통해서 해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놀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5.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16.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17.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13 Entonces dijo Mardoqueo que respondiesen a Ester: No pienses
que escaparás en la casa del rey más que cualquier otro judío.

14 Porque si callas absolutamente en este tiempo, respiro y liberación
vendrá de alguna otra parte para los judíos; mas tú y la casa de tu

padre pereceréis. ¿Y quién sabe si para esta hora has llegado al reino?

15 Y Ester dijo que respondiesen a Mardoqueo:

16 Ve y reúne a todos los judíos que se hallan en Susa, y ayunad por mí, y no comáis ni bebáis en tres días, noche y día; yo también con mis doncellas ayunaré igualmente, y entonces entraré a ver al rey, aunque no sea conforme a la ley; y si perezco, que perezca.

17 Entonces Mardoqueo fue, e hizo conforme a todo lo que le mandó Ester.

여기 정 반대되는 또 다른 신부가 나와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시대 참 된 스타가 에스더라 말할 수 있겠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동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자기 민족에게 큰 화가 닥치게 생겼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진멸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왕앞에 나아가서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누구든지 사형이라고

페르시아의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지가 이제 30일이 넘었는데 그 왕의 부르심이 없이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일깨운 것은 모르드개의 설교입니다.

모르드개의 설교는 엄청난 설교죠

모르드개는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모르드개의 신앙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독려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있는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꺼예요

13절에 모르드개가 처음 말한 내용은 뭘니까?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3. Entonces dijo Mardoqueo que respondiesen a Ester: No pienses que escaparás en la casa del rey más que cualquier otro judío.

뭐냐면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실제로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홀로 면할 수 도 있었을 꺼예요

그리고 면할 수 있을꺼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마귀는 그 이기심을 충족시킬 겁니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가 왕후가 될 때 유대인이라고 모르드개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왕도 모르고 궁전안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모든 유대인이 진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무슨 상관
이나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어썩피 에스더는 고아거든요 부모가
없고

물론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미 시집온 왕
후로써

평생 입 뽕끗 안 해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왕의 총애를 입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나섰다가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후로 편히 살 수 있구요 나서면 죽을수도 있는거예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냐?

이기적인 생각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괜히 나서서 죽으려고 하느냐? 너라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
을수가 있는거죠

그 이기심을 먼저 공경을 한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거죠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되었는데

너만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뿐만아니라.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온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사도바울도 이제는 목을 베임을 당할 참수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곤란에 처해있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주춤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나 역시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되겠다.

게다가 이건 양심수나 혹은 종교인으로써 핍박 받는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갖혀있는 상황은

종교인으로써 혹은 양심수로 갖혀있는게 아니라 일반 잡범들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는

죄인으로 크리미널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나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쩌면 그거 상황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같은 세월호 시국에 또

구원파 논란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내가 한다고 해서 참수를 하겠어요

화형을 시키겠어요 카타콤에 들어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게 없더라도 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게 있을까 두려워서 입을 안여는게

있을 수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일깨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기에 있고 교회가 핍박기에 있는데

혼자 그 핍박을 피해보려고 물러설수 있느냐는 거죠 주춤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주춤한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는거죠

너 혼자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거죠

우리는 운명공동체잖아요 온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게 마땅한 거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럴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을 수 없잖아요

모르드개는 첫 번째 그러한 이기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놀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중략)

14. Porque si callas absolutamente en este tiempo, respiro y liberación vendrá de alguna otra parte para los judíos;

여기보니까 이 모르드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거 같아요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어떤 주석보니까

하마터면 여기서 아마 에스더의 저자가 모르드개라고 생각되는데 모르드개가 기자가요

다른데로 라는 다른 단어대신 유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쓸뿐했다.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나오잖아요

분명히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놀임과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과 회복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온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런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보존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포로교환때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구원을 하는거죠

지금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하고 있는겁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고 정신차리라는 징계죠

이스라엘민족이 전부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막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진것처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왜?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니까 그것은 현재에도 이루어진 것과 진배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분이니까

천국은 마치 내 눈에 실제처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모르드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구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힌 에스더는 너와 너의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사사기의 전쟁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전쟁이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나있는 겁니다.

문제는 참여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만 있는거죠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전쟁은 승리하게 되있어요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메로스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에 져느냐?

그렇지 않죠 전쟁에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에게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있을 때 항상 늦게 참여하죠 그리고 왜 우리 안불렸냐고 화내잖아요

기드온 때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입다때는 입다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심판했습니다.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이죠 더 나아가서

유익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마땅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심판은 분명히 있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고 그랬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씀을 생각 할 때 두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급으로 보답을 해주실 꺼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있어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미쁜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에대한 심판이 있는거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관참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었는데

그 것을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또 모르드개는 너 자신의 위치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네가 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부자가 되면 왜 부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다면 왜 내게 지식이 있을까?

내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면 왜 이 위치가 있을까?

나에게 돈이 있다면 왜 이 돈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겠죠

성경에 보면 자기가 부자 일 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왕을 공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왕을 공경하고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은 왕을 지키라고

나에게 시간이 있는 것은 왕을 섬기라고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에
게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위치를 이용해서 왕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섬긴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 위치를 허락했
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도 왜 하필 에스더가 이 때에 왕비가 되었냐는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태어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이 전파되는 교회
를 통해 구원받고

그 교회에 일원이 된 것이 마지막 때에 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있는게 아닙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왜 갔을까요? 다 가니까 갑니까?

이방인도 가는데요 이방인이 대학을 가는 목적하고 그리스도인이 대학을 가는
목적하고 같습니까?

결혼은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구요? 알콩달콩?

깨소금 이렇게...이방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하는이유 대학을 가는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압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전혀없잖아요

목적이 다른 것이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죠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독려해줬습니다.

이러한 그 모르드개의 설교로 에스더가 자기의 모든 이기심,

혹은 두려움, 혹은 안일함을 떨치고 일어났죠

3일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금식을 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면 안죽어요

아마 에스더는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많은 기도 가운데 자기의 두려움을 굴복시키고 이기심을 접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르드개를 통해서 에스더도 성경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에 남은자가 분명히 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겠구나.

아무리 왕이 취소하지 못할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남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하지 않고 남는다. 그렇다면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은

굉장한 기회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갔는데요

나갈 때 뭘 준비하고 나갔어요?

나갈 때 잔치를 준비하고 나갔어요

만일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 했으면

살며 그 때 잔치 준비했을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잔치잖아요 이미 잔치를 준비하고 나가서

오늘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믿음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의 보존으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되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을 해서 그 결과가 바랬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맞아 떨어졌을 때 얼마나 큰 신앙적인 체험과 감동이 됐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해도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내가 구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무엇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결과가 잘 났으니까 그냥 잘됐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기도한대로 결과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엄청난 체험으로 내 재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든 안하든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얻는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았죠 분명한 행동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선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첫날 왕위에 나아가서 자기를 보였을 때

이미 잔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빠서 그랬겠죠 너무 이뻐어요

여기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죠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이빠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30일 동안 안찾았었어요

마음에 이미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요

그럴수도 있습니까?

30일 동안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너무 심히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렇게 쉽게 줘서 되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준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이미 왕이 자기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서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시다.

한번더 잔치를 할 테니까 왕과 하만 같이 오시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와가지고 역대 사기를 읽다가 모르드개를 알게 됐어요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모르드개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유예하게 된 것이 어찌보면 엄청난 섭리죠

어쩌면 에스더는 그러한 것 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때를 위해서 때를 기다린 거죠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만이 또 와가지고 왕에게 구할 때 밖에 누구 있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왔잖아요

그러한 모든 타이밍을 본다면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만큼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결심이 결국은 별처럼 빛나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체험을 하게 했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잘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토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확신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개는 이일을 통해서 또 엄청난 관작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그 에스더 한 사람의 결실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지금도 부림절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때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심이라는 것은 이자가 몇 천만배 곱해져서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에스더 5장 10절입니다.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12.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 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10. Pero se refrenó Amán y vino a su casa, y mandó llamar a sus amigos y a Zeres su mujer,

11 y les refirió Amán la gloria de sus riquezas, y la multitud de sus

hijos, y todas las cosas con que el rey le había engrandecido, y con que le había honrado sobre los príncipes y siervos del rey.

12 Y añadió Amán: También la reina Ester a ninguno hizo venir con el rey al banquete que ella dispuso, sino a mí; y también para mañana estoy convidado por ella con el rey.

13 Pero todo esto de nada me sirve cada vez que veo al judío Mardoqueo sentado a la puerta del rey.

14 Y le dijo Zeres su mujer y todos sus amigos: Hagan una horca de cincuenta codos de altura, y mañana dí al rey que cuelguen a Mardoqueo en ella; y entra alegre con el rey al banquete. Y agradó esto a los ojos de Amán, e hizo preparar la horca.

물로 모르드개 혹은 하만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자 시리즈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세레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내는 하만의 아내잖아요

하만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바로 아래잖아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작은 일에 마음 빼앗겨서

그 모든 은혜는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할 그런 작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큰 마음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가 크잖아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한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는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만의 말에는 자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 또 자녀가 많은 것 아들만 10명 있었거든요
자기의 부귀 영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게 맞겠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건 하만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누구는 이렇게 못한다.

이것은 하만이 하는 거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7도를 다스려야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써의 넓은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행할 것인가를

친구들과 의논하고 아내와 협력하는 그런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하만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받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아내죠 그 아내라면

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왕께 감사하고 작은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달라고

안내가 이야기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레스는 마치 아합을 충동질한 이세벨과 비슷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높은 나무를 두고 거기다 메달아 그냥 온 천하에

본으로 보이는게 그게 좋겠다고. 50규빗 나무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50규빗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규빗이 45-48cm 인데 그러면 22.5-24m 에요 1층에 3미터로 잡으면 딱 8층이거든요

나무를 8층짜리를 딱 달아놓고 거기다가 목을 메달아서 두라고

8층이면 그당시 바벨론은 평야잖아요 페르시아도 그 수산궁도 평야거든요

이 8층 높이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 메달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자고

그러한 잔인성을 충동질 하는게 아내 세레스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죠

만일 누군가가 일하다가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면

혹은 남을 비하한다면 옆에 교제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요?

장대를 만듭시다 그래야 됩니까?

오히려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걸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자

이래야 할텐데 장대를 만듭시다. 50규빗 짜리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죠 여기 하만도 메달리고 아내 세레스, 10 아들까지

다 메달리고 그 집안이 진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짓밟으려고 했던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넘겨 줬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은 행여나 품지 말아야 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11.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우리는 미쁨이 없을찌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8. Acuérdate de Jesucristo, del linaje de David, resucitado de los muertos conforme a mi evangelio,

9 en el cual sufro penalidades, hasta prisiones a modo de malhechor; mas la palabra de Dios no está presa.

10 Por tanto, todo lo soporto por amor de los escogidos, para que ellos también obtengan la salvación que es en Cristo Jesús con gloria eterna.

11 Palabra fiel es esta: Si somos muertos con él, también viviremos con él;

12 Si sufrimos, también reinaremos con él; Si le negáremos, él también nos negará.

13 Si fuéremos infieles, él permanece fiel; El no puede negarse a sí mismo.

디모데후서 배경은 잘 아실겁니다. 네로의 핍박에 이제 바울 사도가 참수되기 직전에

유언처럼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복음을 맡은 자로써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그 심판기 환란기에 엄청난 핍박기에 위축되어 있는 마음이 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격려하면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첫째는 충성된 교사가 되어라 둘째는 좋은 군사가 되어라

셋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어라

넷째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핍박기에 내가 충성된 교사가 되어야 되고,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합니까?

그 이유로써 4가지를 그 뒤에 들고 있는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죠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 Acuérdate de Jesucristo, del linaje de David, resucitado de los muertos conforme a mi evangelio,

왜 이 교회의 팍박에 나까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주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씨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죽은자 가운데 다시 살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로마서 1장 2-4절까지 복음은 예수그리스도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절로 설명을 했죠

복음은 인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인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또 두 번째로 말한다면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그
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되었던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는 일신상의 안일과 평안함을 생각하고 있나본데

진정한 안일과 평안은 부활 후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
한다음에

안일 평강 영원한 안식이라는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그리스도도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에 참여하셨는데

너는 그 과정을 건너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고난을 통과한 안식이었거든요

너가 평강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평강은 죽은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의 고난이 크지만 부활후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얻을
칭찬을 생각하라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뭘니까?

(딤후2장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음전하다가 내가 죄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죄수가 될 었다 할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한번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비록 바울사도가 복음전하다가 죄수처럼 매였지만 복음은 계속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고하는 것이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해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 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써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면

설사 내가 매이거나 심지어 참수당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가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해야될 일이죠

그리고 3번째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자라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한다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 할 겁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화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 희생은 감수 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고통이 크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라는게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내가 현재 당해야 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별개 아닌게 되버리는 거죠

그걸 생각하냐고 하면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군사로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충성된 교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급부가 너무나 커버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월급을 바라고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영광과 구원이 나를 통해 그분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작은 수고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뒤로 얼마나 올바르게 생활을 하는지를 바라본다고 하면 내가 하는 수고가 크다 과하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4번째로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에스더처럼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라 확실한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어요

Si sufrimos, también reinaremos con él

참는 다는 말은 수고는 했는데 죽지는 않아요 고통만 받아요

하지만 그 고통을 계속 참아나가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죽으면 살고 죽지 않고 고통받아도 주님 오실 때 왕노릇 하게 되니까

그 결과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수고를 감당하는게 큰 일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거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Si le negáremos, él también nos negará.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찌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Si fuéremos infieles, él permanece fiel;

El no puede negarse a sí mismo

수고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말씀도 믿을 수 있는 말씀인 반면에

주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말씀도 역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충산다고 해서 무슨 책망이 있겠느냐?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

느냐?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내가 대충산다고 설마 주님이 나를 부인하랴?

주님은 거짓말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믿어도 좋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두려운거죠 정말 두려운게 뭔가를 생각해 보라

핍박 때문에 물러서는게 두렵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두려운 주님의 진노하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말이 지옥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십시오

구원 받았는데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은 그래서 한 무나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이

마지막 때에 한 무나를 빼앗기고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 받고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놀이게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죠 터만 남았어요

그것이 영원한 거죠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겁니다. 왜? 자기는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상태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기록된대로 그렇게 주실거란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상급 그리고 보응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수양회가 뒤틀린 혹은 수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 교회생활 가운데서 작은 봉사를 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그리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에스더 같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들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 같은 사람 구원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이러한 주님의 참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 받고 교제로 위로 받고 또 전도로써 다른 영혼을 건지게 하

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을 노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 하계수양회를 이제 두어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참석할 뿐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수고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오랜 봉사기간 동안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나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